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김태화	학번	
이메일	kimtaehwa9@gmail.com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Rutgers / MCRS	(국가) USA
기간	1년	[귀국일:2020년12월29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교학처장 귀하

2021년 1월 20일

신 청 인 : 김태화 (인)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연중 기온은 서울과 비슷합니다. 다만, 비가 조금 더 자주 왔던 것 같고, 가끔은 엄청난 폭우가 내렸습니다. 여행 중에 두 번 그런 폭우를 경험했는데, 1m 앞이 안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운전자들은 차를 갓길에 정차하고 진정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눈은 한번 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학교가 있는 New Brunswick은 뉴욕 맨해튼까지 기차로 55분 걸립니다. (편도 14\$) 기차를 타면 승무원이 일일이 좌석표를 점검하는데, 그 후진성에 실소가 나옵니다. 뉴욕 가는 방법은 New Brunswick 기차역 맞은 편에서 버스를 타도 되는데, 시간은 살짝 더 걸립니다.

워싱턴까지는 3시간 거리고, 보스턴까지는 4시간 걸립니다. 기차를 타고 이동할 수 있으나 요금이 비싸서 자가 운전을 권장합니다. (워싱턴 편도 요금 91\$)

New Brunswick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Edison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한인타운이 있습니다. 약 1만명 규모의 한인타운이기 때문에 한국 식품을 파는 H-mart, 이발소, 자동차 정비소, 식당 등 없는 게 없다고 보면 됩니다. 참고로, Edison은 토머스 에디슨이 여기에 처음 연구소를 설립한 것을 기리는 이름이며, 행정단위는 township입니다. (New Brunswick은 행정단위가 city임) New Brunswick은 도시 재개발을 통해 새롭게 탄생한 도시로서, 가까이에 강이 있는 깨끗하고 현대적인 도시입니다. [Urban Redevelopment]라는 수업을 들으면 New Brunswick 재개발 과정을 상세히 배우게 되는데요, 이 과목은 도시계획 전공자 뿐만 아니라 정책학 전공자들도 다 같이 들었습니다.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제가 선택한 MCRS 과정은 KDI 제휴 대학 중 드물게 도시계획 과정으로 전공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다양한 커리큘럼을 제공하려고 했으며, 따라서 도시계획 전공과 관련하여 선택과목에 대한 폭이 넓습니다.

교수들은 열정적으로 수업을 진행하였고, 수업의 질도 상당한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미국 학생들과 조를 편성해서 토론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솔직히 한국 학생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다음

수업의 내용을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멘트'를 준비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1년 동안 총 8과목을 수강합니다. 아래 각 학기 앞의 두 과목은 필수과목이며, 별도로 논문이나 Capstone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1학기]

Public Policy

Planning Methods

State & Local Public Finance

Inter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2학기]

History & Theory of Planning

Urban Economy & Spatial Patterns

Urban Redevelopment

Survey of Planning Law Principle

Public Policy는 한국 학생들을 위해 특별히 편성된 과목으로, 정책학 전반에 대한 개론 수준의 강의였고, 교수도 한국 학생을 배려하는 태도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Planning Methods는 일종의 응용통계학인데, 난이도 및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잘 대응할 필요가 있는 과목입니다.

State & Local Public Finance는 미국 행정과 예산을 다루는 과목으로,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흑인 교수였는데, 수업을 자료 없이 바로 진행하는 점이 좀 애로사항이었고, 흑인 특유의 '리드미컬한 강의(말하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Inter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는 도시 계획/개발 과정에서 역사 유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다루는 과목이었고, 한국학생들에게 단체 Report를 요구하였습니다. David Listokin이라는 백인 노(老)교수가 강의를 했는데, 한번은 아침 일찍 강의실에 갔던 우리 학생 중 한 명이 'Hello' 라고 인사를 했다가 버릇 없다고 지적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 모두는 그 교수에게만은 'Good Morning'이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외적인 것이고, 교수에게 Hello나 Hi를 말해도 되고, 실제로도 그렇게 합니다.)

History & Theory of Planning는 말 그대로 도시계획의 역사와 이론을 배우는데, 매 주마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논문 또는 기사를 읽고 정리해서 Report를 써야 하는, 쉽지 않은 과목입니다. 전체 8과목 중 가장 demanding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미국 도시계획의 '역사'에 관한 내용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었던 미국 도시계획의 이면을 적나라하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Urban Economy & Spatial Patterns는 도시 경제학으로, PPT 발표를 한번 해야하는 것 외에는 부담이 별로 없는 과목이었는데, 교수가 한국 학생들은 다들 점수를 잘 준 것으로 압니다.

Urban Redevelopment는 위에서 언급한 Listokin 교수의 수업으로, 중간/기말 고사 시험 범위가 어마어마 했습니다. 우리는 분담을 하여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조차도 버거워하는 학생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Survey of Planning Law Principle은 도시계획과 토지 이용에 관한 법 원칙과 판례를 배우는 과목으로, 우리 KDI member 20명 중 두 사람만 수강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실용적인 내용을 공부할 수 있어서 상당히 만족한 과목 중의 하나입니다.

전반적으로, 커리큘럼이나 강의 수준에 만족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도시계획 수준이 워낙 높다 보니 그 격차에 의한 한계는 감안하여야 합니다.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저는 미국에 혼자 갔기 때문에 Off-campus에 아파트를 별도로 얻었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갈 수도 있었지만, 2인 1아파트가 부담스러워서 학교 밖에 아파트를 얻은 것이지요. 그 아파트는 한국기준으로 보면 오피스텔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내 중심가에 있어서 임대료가 상당히 비쌌습니다. (월 1700\$, 나중에는 1500\$로 인하함)

도시계획학과 건물인 Bloustein 역시 시내 중심가에 있었는데, 제 아파트와는 걸어서 3분 거리였고, 아파트가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관계로 슈퍼마켓, 식당 이용 등 기숙사보다 생활의 편의성이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New Brunswick은, 미국에 처음 올 때 들었던 얘기와 달리, 결코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밤 늦게 외진 곳을 혼자 돌아다니지만 앓는다면 안전한 도시라고 평가를 합니다.

음식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한인타운이 가까이에 있어서 한국음식에 대한 향수는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일상 음식인 햄버거 값이 생각보다 비싸서 놀랐었고, (콤보 메뉴 10~15\$), 학과 건물인 Bloustein 근처에 있는 'Teri Teri'(히스패닉 아저씨 운영)라는 식당이 기억에 남는데, 치킨 덮밥(spicy chicken with rice &

salad)을 강력 추천합니다. 우리 입맛에 꼭 맞는데다 마침 집 근처에 있어서 1년 내내 이용했습니다.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미국에서의 생활은 수업을 제외하면 두 가지가 크게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여름방학에 내 차로 미국 일주를 한 것입니다. 약 1달 동안 2만 km를 여행했는데, 대자연의 위대함과 함께 미국 사회의 이면을 살짝 엿볼 수 있었던 정말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숙박은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해 반은 캠핑을 했고, 나머지 반은 호텔을 이용했습니다. 미국은 캠핑장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여행 중에 미국은 인터넷이 안되는 곳이 많아서 길 찾아가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입한 T-mobile은 미국 2위의 통신업체인데도 미국 전역의 60%밖에 커버를 하지 못 했습니다) 과속으로 한번 경찰 단속에 걸린 적은 있었으나 심한 과속이 아니어서 다행히 티켓은 받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20mile 이상의 과속은 Reckless Driving이라 하여 법원에 의무로 출석을 해야 하고 6개월 운전면허 정지를 받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 주마다 차이는 있음)

여행 중에 특별히 곤란한 점은 없었으나, 내 실수로 차 배터리가 방전되어 보험사를 통해 긴급출동 서비스(Roadside Assistance)를 한번 부른 적이 있었는데, 정비소 직원이 내 위치를 잘 못 찾는 바람에 애를 먹은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골프를 제대로 배운 것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에 골프를 한번도 해 본 적이 없었는데, 미국에서 1년을 보낸 후 '90 중반'의 실력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학교에 골프장이 있는데, 학생들은 15\$을 받습니다. 저는 같이 간 사람들과도 많이 쳤지만, 주로 미국 사람들과 플레이를 많이 했습니다. 미국 골프장은 모르는 사람과 'join'을 해서 치는 것이 매우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색함은 전혀 없습니다. 그때 미국 사람들의 골프에 대한 훌륭한 매너를 많이 배웠고 여러 번 감탄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비록 코로나로 인해, 여러 계획들이 어긋나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합니다.

우선 학업적인 면에서는, 미국 도시계획 과정에서의 갈등과 해법들, 미국식 도시 재개발 과정, 그리고 계획과 토지 이용에 관한 여러 현실적인 쟁점 등 도시

계획의 기본을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법률직입니다.)

다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관점에서는, 여행과 골프 그리고 일상 생활을 통해 경험하고 배운 미국 문화의 장점과 긍정적인 가치들은 살아가는데 있어서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컨대, 미국인들은 곤경에 처한 사람을 보면, 설령 낯선 사람일지라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려는 마인드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 번 경험했는데, 여행 중 제 차 배터리가 방전이 됐을 때에도, 백인 할아버지와 흑인 아저씨(그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임)가 마치 자기 일처럼 정성을 다하여 도와려는 모습에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미국에 와서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학교 International Student Center에 가서 F1서류에 담당자 사인을 받아야 합니다. 저도 가자마자 봄방학 때 쿠바에 가기 위해 사인을 받았지만 코로나로 인해 가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네요.

미국 생활에서 초기에 겪는 가장 어려운 일은 아마 운전면허 취득일 것입니다. 면허시험장의 체계 없음과 어이없는 행정 처리에 경악을 금치 못 할 텐데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에 너무 열 받아 하지 마시고, 그냥 추억(?)이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평생에 한번 있는 기회인 만큼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골고루 다 경험하고 배우고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잊혀지지 않는 한해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KDI School, 263 Namsejongro, Sejongsi, KOREA

TEL: 82-44-550-1080 FAX: 82-44-550-1232

HOMEPAGE: <http://www.kdischool.ac.kr>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윤세진	학번	
이메일	sy630@scarletmail.rutgers.edu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Rutgers / MPAP	(국가) 미국
기간	2020.1.6. ~ 2020.12.30.	[귀국일: 2020년12월31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21년 1월 14일

신청인 : 윤세진 (인)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학교에서 제공하는 오리엔테이션 일정에 따라 핸드폰 개통, 은행계좌 개설, 자녀 학교 입학 등이 이루어져 초기 현지 적응이 비교적 쉬웠음. 핸드폰은 T mobile, 은행은 TD Bank를 이용하였음.

저는 학교 가족 기숙사인 마빈 아파트에서 거주했는데 시세에 비해 비용은 저렴한 편이나 시설이 오래 전에 지어져 낡았음. 마빈 아파트는 단층 또는 복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가 거주한 복층의 경우 아래층에는 부엌과 거실이 있고 위층에는 침실 2개와 화장실 1개가 있었음. 침대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학교에 요청하면 침대를 줌. 전기장판이 필요한 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제 경우에는 전기장판은 필요하지 않았음. 5월 초 기숙사에 히터가 나오지 않았을 때 아침에 추웠음. 그리고 따뜻한 물이 충분히 나오지 않을 경우가 있었음.

마트는 주로 Wal Mark, ShopRite, H mart, Costco를 이용했으며 차로 10~20분 정도 소요됨. 한국에서 사용했던 Costco 회원카드를 이용했으며 차량 주유도 Costco에서 주로 했음. 뉴저지에서 차량 주유시 Costco 회원카드가 필요하지 않았으나 캘리포니아에서는 Costco 회원카드가 있어야 차량 주유가 가능했는데 한국에서 발행한 Costco 회원카드는 작동되지 않아 직원에게 카드를 보여주어야 주유가 가능했음.

뉴저지는 한국의 운전면허증으로 실기가 면제되어 필기시험만 보았는데, 필기시험은 아주 쉽지는 않아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음. 제가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에는 팬데믹 이전이라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줄을 서서 서류를 접수하고 시험을 봤으나, 지금은 미리 예약하고 MVC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음. 배우자의 경우 한국의 운전면허증이 발급된 지 오래된 것이었는데 MVC 직원에게 운전면허증을 보고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실기시험을 보라고 했음. 오래 전에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은 재발급을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팬데믹으로 인해 3월 중순 이후부터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었음. 봄학기 온라인 수업에서는 교수님의 강의를 녹화한 파일이나 강의노트를 사이트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가 여름학기과 가을학기에는 실시간 온라인 수업이 이뤄졌음. 여름학기과 가을학기 온라인 수업의 경우 봄학기 오프라인 수업과 비교해서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음.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1년간 학점으로 인정되는 8과목과 ELL 과목을 수강해야 하는데 대부분은 봄학기 4과목과 ELL수업, 가을학기 4과목과 ELL수업을 이수함. 저는 여름학기 1과목을 수강해 가을학기에는 3과목을 들었음. 가을학기에는 ELP와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귀국 준비를 해야 해서 바쁜데 3과목을 이수해서 약간 수월하게 가을학기를 보낸 것으로 생각됨. 참고로 여름학기는 7주간 매주 2회 수업이 있었음.

저는 봄학기에 Economic and Public Policy (필수), Public Policy Formation (필수), Inter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State and Local Public Finance, 여름학기에 Research Design (필수), 가을학기에 Public Financial Management, Urban Redevelopment, Regional Development를 수강했음. 필수과목인 Basic Quantitative Methods는 KDI에서 수강한 QM으로 웨이버함. 수강 과목은 지도교수님과 상의 하에 최종 결정하였으며 가을 학기 수강신청시 많은 도움을 받았음.

Economic and Public Policy (교수 Jermaine Toney)는 미시경제학으로 KDI에서 수강한 AMPP와 유사하거나 쉬운 편임. 시험 2번, 퀴즈 2회, 과제가 4회(2~4매) 있었음.

Public Policy Formation (교수 Alan D. Cander)는 Kindon의 이론에 따른 정책 형성 과정에 대한 것으로 시험은 1회, 리포트 3회(1매~7매, 파워포인트 포함) 있었음. 실라бус에는 발표 1회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온라인수업으로 변경되면서 발표 없었음.

Inter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교수 David Listokin)은 미국 역사 보존 정책에 대한 내용으로 시험은 없었고 리포트 2회(개인 및 그룹 리포트)가 있었음. 팬데믹 전에는 Preservation Walking Tour 3회가 계획되어 있었으나 팬데믹 이후 취소되었음.

State and Local Public Finance (교수 Henry A. Coleman)는 미국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정책 관련 개념, 이론 등을 배우는 것으로 시험 2회 있었음.

Research Design (교수 Debbie Borie-Holtz)은 사회연구조사 개념과 이론에 대한 내용으로 시험은 없고 CITI Certification 및 리포트 6회(2~7매, 매주 1회 과제)이 있었음.

Public Financial Management (교수 David Listokin)은 미국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한 것으로 정해진 미국 내 몇 개의 주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해 매주 미국 전체와 비교 분석을 실시하는 과제를 제출해야 함. 시험은 1회, 리포트는 11회 있었음. 이 과목은 실시간 강의는 없으나 매주 과제를 제출하고 토론에 참여해야 함. 저는 매 과제마다 상당시간이 소요되었음.

Regional Development (교수 Hoosang Amirahmadi)는 지역개발에 대한 다양한 이론에 대한 내용으로 시험 2회(4문제), 발표 1회가 있었음. 시험 일주일 전에 예상문제를 주고 시험은 4문제로 150 단어 이내로 작성해 제출하는 형식임.

Urban Redevelopment (교수 David Listokin)은 미국 도시개발 정책 및 재정분석 기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시험 2회,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리포트 1회(10~15매, 파워포인트로 제출 가능) 있었음. 시험은 일주일에서 열흘 전에 시험 문제를 주고 작성해서 마감일에 제출하는 형태인데 부량이 많았음. 교수님이 나이가 많음에도 쉬는 시간 없이 세 시간 동안 강의하신 적이 많음.

4.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및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자녀들은 놀우드 학교에서 유치원 및 3학년을 다니다가 9월에 놀우드 학교 1학년 및 MLK 4학년을 다녔음. 팬데믹으로 인해 3월 중순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았음. 1학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대면수업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4학년의 경우 8시부터 1시까지 Zoom으로 수업을 받았음. 한 반에 학생은 약 20명 정도였음. 2020년 12월부터는 월요일과 금요일에 early dismissal day를 실시했음. 1학년의 경우 일주일에 1회 20분 정도 ESL 수업이 있었고 4학년의 경우 매일 30분 ESL 수업이 있었음. 12월 초 귀국시 마지막으로 재학했던 학교에 필요한 재학증명서와 성적표를 요청하였고 학교에 찾아가 관련 서류를 받았음. 담임 선생님들에게는 학교 다니는 마지막 날로부터 2주 전에 메일로 학교를 그만 다닐 것이라고 알렸음.

출국시에는 짐을 최소화해서 별도로 이삿짐을 보내지 않았으나 귀국시에는 이삿짐 택배를 이용했음. 이삿짐 택배는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의 삼촌택배를 이용했음. 삼촌택배 사무실까지 짐을 가지고 가지 않고 UPS를 이용해서 이삿짐을 보냈는데 비용은 더 들지만 직접 사무실에 가지 않아도 되어 편리했음. 이삿짐은 귀국 후 출입국 증명사실 서류 등을 삼촌택배에 이메일로 보내면 우체국택배를 통해 집으로 배달되었음.

저는 Carvana를 이용해 차를 팔았음. Carvana에서 차 견적을 받고 Carvana에서 차를 팔기로 결정하면 차와 Title 등을 사진으로 찍어 웹사이트에 파일을 올리고 원하는 차량 픽업 시간을 선택하면 됨. 직접 차를 가지고 지점으로 가지 않아도 되어 편리했음. 저는 SSN이 없어 체크로 차 값을 받았음.

은행 계좌는 출국하기 5일 전에 은행을 방문해 닫았는데 만약 통장 잔액이 큰 경우 하루에 계좌를 닫기 어려울 수 있음. 그리고 은행 계좌를 닫기 전에 펜딩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팬데믹으로 본인과 자녀들 학교 강의를 온라인으로 바뀌고 지역 도서관과 기숙사 커뮤니티 활동이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되어 아쉬움이 있었음. 그러나 그 이외에는 생활하는데 큰 어려운 점은 없었음. 2020년 3~4월경에는 마스크, 손세정제 등이 부족했으나, 그 이후에는 이러한 물품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음. 다만 실내 취식은 많이 제한되어 불편한 점은 있었음. 그렇지만 뉴스로 보는 것보다 실제 생활할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위험은 그리 크지 않다고 생각함. 저는 GMP 2년차 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했으며 팬데믹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미국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생활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함.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조은경	학번	
이메일	janice@kdis.ac.kr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럿거스/MPAP(행정학)	(국가) 미국
기간	2020.1.1.~2020.12.31	[귀국일: 2020년12월26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내용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21년 1월 30일

신청인 : 조 은 경 (인)

저는 지자체 소속으로, 행정학을 전공으로 하여 코로나가 한참 극성이었던 2020년, 럿거스에서 수학했습니다. 먼저 짧은 소회를 적어보자면, 지난 1년 동안 '힘들다' 또는 '이 곳에서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한국에 오는 귀국비행기를 타는 순간 거짓말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은 모두 잊혀지고, 좋은 기억들만 남았습니다. 지금 미치도록 그 시간들이 그리웁니다. 매일 거실 창문에서 빨갛고 선명한 노을을 보고 집 근처 학교 캠퍼스를 산책했던, 가장 단순하고 평범한 순간조차, 지금, 다시 없을 보석처럼 아름다운 순간으로 각색되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후배님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저 역시 이전 기수들의 귀국보고서를 통해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았기에, 가감없이 제 경험을 솔직하게 적어보려고 합니다. 특히 여학우인데 애들만 데리고 가는 경우에 대한 경험 위주로 적고자 합니다. 저는 중학생 아들만 데리고 출국하고, 남편과 고등학생인 딸은 한국에 남아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안 자녀만 데리고 가는 분들의 고민을 몇 분 받아본 적 있었습니다. 저 역시 가기 전에 많이 망설였고 고민했습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건가? 외국에 나가는 것이니 어쨌든 힘든 건 당연하겠지만 어느정도 힘든 건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가? 정말 많은 고민을 떠 안고 출국 비행기를 탔던 것 같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떤 일이든 부딪히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든 해결되었습니다. 다만, 출국 전 영어 대화 연습을 많이 하고 왔다면 정말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을 줄일 수 있었겠다는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KDI에 있는 동안은 제가 영어를 못하는 것을 많이 실감하지 못했고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럿거스에 있는 동안 여학우들과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이곳은 운전을 잘하든, 영어를 잘하든 둘 중 하나만 잘하면 적응이 쉬울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영어를 못해도 이곳에서 사시고 여행하고 졸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시겠지만 영어를 잘하면 어려움을 배는 줄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른 지역은 덜하다고 그러시는데, 특히 뉴욕, 뉴저지, 보스턴 등을 포함한 동부지역은 영어를 못하는 외국인들에게 관대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워싱턴DC는 전체적으로 친절했지만 그 외는 오히려 대놓고 무시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도 KDI에서처럼 다른 학우들과 교수님들이 이해만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영어 훈련을 많이 하고 오시면 적응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 적응

저는 출국 전 이전 년도 기수 분에게 테이크 오버를 통해서 혼다 CR-V를 넘겨받았는데, 1월달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월 21일이 공식 학기 시작일로 I-20에 적혀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DMV(면허와 자동차 등록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에서 신청접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맨 처음 초기 생활 적응을 적자면 뭐니뭐니해도 DMV를 언급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에디슨 DMV를 이용했는데, 그 불친절이란... 영어를 못해서 깔보는 건지, 외국인이라서 그런건지 모르겠습니다

만, 한두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불친절과 모욕감을 주는 수준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1월은 DMV의 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DMV와의 연결이 거의 다인 달입니다. 1월 6일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2주 정도는 럽거스 단체 OT프로그램에 참여하느라 이래저래 시간 갔고요 (그 OT 프로그램의 최종 목적은 운전면허를 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운전면허에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듦), 그 다음 열흘 정도는 필기 운전면허 따고, 차 등록하는 등 DMV 행정과 함께 하게 됩니다. DMV를 일단 한번이라도 경험하면, 진짜 한국의 행정이 친절과 속도 면에서 최고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운전면허를 따고 나니 제가 운전은 미숙해도 집에서 10분거리에 있는 H마트는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당장의 어려움이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락다운 전인 3월중순까지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를 다닐 때는 학교가 다운타운에 위치해 있어서 주차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교 셔틀버스를 이용했습니다. 집 앞에 정류장이 있고, 무료이고, Transloc라는 앱으로 실시간 트래킹이 되었기 때문에 셔틀 이용은 편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말과 주중의 스케줄이 다르고 정류장마다 갈 때와 올 때의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경로를 잘못 체크해서 쿡/더글라스 캠퍼스(쿡/더글라스 캠퍼스에서 다시 부시캠퍼스까지 오는데 1시간 소요됨)를 경유한 적도 있었습니다. 학교 갈 때는 Paterson Street에서 내려서 5분정도 걸어갔고 집에 올 때는 학우들과 Scott Hall까지 15분정도 대화를 나누며 걸어와서 부시캠퍼스까지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점심이나 저녁은 학교에서 7-8분 거리에 있는 칩폴레(밥 보울과 야채, 고기가 멕시코 소스로 버무려진 음식)를 애용하였고, 종종 점심을 싸와서 학우들과 강의실 또는 학교건물 3층의 휴식공간에서 먹었습니다.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전반적인 교육의 질은 KDI보다 떨어지거나, 비슷한 수준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떨어진다고 한 것은 제가 비교적 점수를 따기 쉬운 과목을 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입법 관련 과목을 수강 add&drop 기간 하루 들은 적이 있었는데, 첫 날인데도 학우들의 수준이 상당해서 제가 도저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수준이 높다고 평가받는 과목들은 대부분 학우들과의 적극적인 토론이 수반되는데 저는 그런 과목들은 모두 안 들었기 때문에 교육의 질이 나쁘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럽거스 대학의 수준이 좋지 않은 것으로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는데, 제가 느낀 것은, 미국 대학원 교육이 많은 리딩과 학우들과의 토론활동을 통해 지식을 쌓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신의 적극적인 노력(지난한 독서와 열정적인 토론)이 없다면 수준 높은 교육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업에서의 토론은 많은 리딩을 요구하기 때문에 단순한 영어실력 또는 자신이 갖고 있는 내재되어 있는 지식만으로 밀고 가기에는 한계가 있고 매주 쉬지 않고 리딩을 하지 않는 한 수준 높은 교육 즉 대

학원다운 교육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처럼 토론 No, 리딩 No가 가능한 수업만 듣고 렛거스 대학원 교육의 질을 논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월중순까지 대면 수업하고 이후부터 12월까지 쪽 온라인 수업을 했는데, 3월 중순부터 5월 초 즉 1학기의 온라인 수업은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교수들도 온라인수업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었는지 제 각각 이었고, 온라인 포맷에 익숙한 젊은 교수들의 수업이 그나마 들을 만 했습니다. 하지만, 2학기 들어서는 렛거스 자체적으로 온라인 수업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해서인지 교수들의 수업이 좀 더 뽁뽁하고 출석 요구도 강해지고 숙제도 많아져서 12월 중순 넘어서까지 너무 바빴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수업보다는 대면 수업이 훨씬 집중도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업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동료 학우들과의 상호작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점이 매우 아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저는 MPAP(Master of Public Affairs and Politics: 공공행정학)가 전공이고, 30학점이 졸업 요구 학점인데, 6학점은 KDI 1년차에서 교환가능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24학점만 수강하면 되었습니다. 특이점은 논문이 필요 없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MCRS프로그램도 마찬가지이고, 여름학기때도 1과목(3학점)을 들을 수 있어서 봄에 4, 여름에 1, 가을학기에 3과목을 들을 수 있지만, 여름학기에 들을 수 있는 과목들이 한계가 있어서 대부분 학생들이 봄에 4, 가을에 4과목을 들었습니다. MPAP의 경우 필수과목이 4개인데(Public Policy Formation, Research Design, Basic Quantitative Methods, Economics for Public Policy) MPAP 디렉터인 헤틀링(Hetling) 교수와 상의해서 일부 과목(제 경우에 Research Design) 등은 웨이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들은 과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봄학기(12학점)

- State & Local Public Finance (3학점): Henry Coleman 교수로 수업분위기는 유쾌하고 편한 분위기입니다. 시험은 두 번 보고 예상문제를 미리 시험보기 전 주에 제시해주었기 때문에 비교적 편하게 들을 수 있었던 과목입니다.

- Economics Public Policy (3학점): Jermaine Toney 교수로 수업분위기가 유쾌하고 편한 분위기입니다. 시험은 두 번 봤고, 이주에 한번 퀴즈를 봤으며 숙제도 적지 않게 주었지만 미시경제학 개념을 알고 있다면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과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경제학 개념이 전혀 없어서 경제학 관련 유튜브 강의를 들으면서 시험과 퀴즈를 대비했습니다.

- Seminar Public Policy -KDI Policy Formation (3학점): Alan Cander 교수로 KDI학생들만을 위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편하게 진행됩니다. 교수님도 되도록 천천히, 또박또

박한 영어로 발음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수업 자체 난이도는 쉽습니다.

- Inter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3학점): 미국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지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존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적지 보존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개념이고 도시 개발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본 과목의 교수님은 데이빗 리스토킨 (David Listokin)인데, 수업은 정말 지루합니다. 하지만, 교수님은 해당 연방 프로그램과 뉴저지주의 각종 도시개발 재정 프로그램에 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본 과목에서는 교수님의 진가를 몰랐지만 2학기때 다른 과목으로 만나보았을 때는 도시개발 재정과 관련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원래 이 과목은 3차에 걸친 현장체험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코로나19로 1차 현장체험만 경험했고, 이는 지역사회 (뉴브론즈윅) 역사를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 KDI ELL 프로그램(0학점): KDI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듣는 영어 프로그램으로 1주에 1회이며, 봄학기에 1주 2시간, 가을학기에 1시간 소요되었습니다. 봄 학기에 들었던 영어 교수님이 우리와 너무 맞지 않아서 많은 불평들이 있었고 이러한 불만들을 학교 측에서는 반영을 해줘서 가을에는 다른 교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 Graduation ELL Communication Studio (0학점): 별도로 신청한 영어 프로그램(무료)으로 1주에 1회였으며, 영어 프리젠테이션 훈련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락다운 전까지는 수강 학생들이 별로 없어서 학생 개개인들이 충분히 훈련할 수 있었던 재미있는 수업이었으나, 락다운 후 온라인으로 진행하면서 큰 도움은 안되었습니다.

(2) 가을학기(12학점)

- Basic Quantitative Methods (3학점): 가설검증/아노바/카이스퀘어/회귀분석 등 통계 기본을 배우는 과목으로 내용이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교수님이 수업을 어렵게 하는 스타일이신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교수님의 악필을 이해하기 어렵고 (온라인 강의자료로 사용되는 많은 부분들이 손글씨 자료를 스캔한 자료), 교수님이 인도출신이어서 그런 것인지 TA도 인도 출신이고, 인도출신 학우들이 반 정도 될 정도로 많았는데 TA와 학우들의 인도식 영어발음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 어려웠고 짜증났었습니다. 시험이 어렵고(온라인상에서 카메라 키고 계산기 갖다 놓고 시험 봄) 과제가 많으므로 통계 기본을 이해하고 있다면 웨이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Public Financial Management (3학점): 원래 입법 관련 과목을 듣고 싶었으나, 수강변경 마지막날 듣고 너무 어려워서 급히 바꾸게 되면서 헤틀링 교수님이 추천해주었던 과목입니다 (Bloustein학교 수업이 아니라, MBA 과정이라고 들었는데 헤틀링 교수님이 승인해준다면 가능합니다). David Listokin교수님 수업인데 교수님이 직접 수업을 한다던가 줌 수업을 진행하지는 않고 모든 수업이 주마다 있는 과제와 게시판 형식의 토론이었기 때문에 수업자체가 어렵지는 않았지만 숙제와 토론을 하려면 많은 리딩을 이해해야 했기 때문에 꽤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었습니다.

- Urban Redevelopment (3학점): David Listokin 교수님 수업으로 도시 재개발에 필요한

재원 조달(세금감면, 재산가치 계산 등)과 관련된 내용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시험은 두번 보았고, 15장 정도의 리포트가 1개 있었습니다. 시험 보기 전에 문항들을 미리 알려주셨지만 내용이 너무나 많고 방대해서 학우들과 나눠서 시험을 준비했었습니다.

Regional Development (3학점): Hooshang Amirahmadi 교수이고, 해당 과목명을 우리나라 용어로 번역하자면, 지역 개발학 개론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역 개발과 관련된 최근 이슈들과 이를 설명하는 이론적 배경 등을 다루는 과목으로 내용도 이해하기 쉽고 시험 내용도 미리 제시해 주시므로 거의 모든 KDI학생들이 들었습니다. 시험은 교과서 내용 위주로 준비했으며, KDI 도서관에서 온라인으로 해당 교과서를 이용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개인 프리젠테이션은 1회 했으며, 온라인상에서 했으므로 외우지 않고 다소 편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 KDI ELL 프로그램(0학점): 2학기때는 1주일에 1시간 수업을 들었습니다.

이외에 2학기때는 학교에서 하는 대화모임(conversation group)에 참여 했었습니다. 이전 연도까지는 학교에서 conversation group을 매주 대면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학기때는 운영하지 않았고 2학기때는 줌으로 온라인 대화모임을 운영했습니다. 요일별로 매주 1회씩 운영되고 있어서 욕심을 낸다면 매주 5회 대화모임(보통 1시간)에 참여해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2학기 수업이 부담이 많이 돼서 수요일 수업만 매주 1회 참여했는데 참여하는 학생들의 영어수준이(3-5년 이상 거주한 동양인들) 높아서 부담은 되었지만 내 의견을 말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conversation group은 별도 비용이 없이 랫거스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ELL수업 교수님이 해당 프로그램을 알려줘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KDI학생들은 미혼이신 경우를 빼고 가족과 온 경우는 모두 기숙사를 이용하였습니다. 대부분 복층 구조의 마빈 아파트에 배정되었지만, 제가 테이크오버를 받은 아파트가 니콜스라서 니콜스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건물에 들어올 때마다 카드키를 대고 들어와야 되서 보안 측면에서 매우 만족스러웠지만, 아이들의 재미 측면에서는 아기자기한 복층 구조인 마빈이 아이와 살기에 더 재미있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기숙사가 많이 낡아서 어떤 집은 비가오면 새기도 했다던데, 다행히 저의 집은 그렇지 않았고 수리사항이 있으면 웹에 올리면 며칠내 방문해서 고쳐주었고 모든 유틸리티(수도, 전기, 인터넷) 비용은 렌트비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여학우가 아이만 데리고 온 경우에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기숙사 특성 때문인지 코로나19 때문인지 원인을 정확히 알 수가 없으나, 이웃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기숙사에는 아랍과 인도에서 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랍에서 온 사람들은 아랍인들만의 커뮤니티가 있고 인도에서 온 사람들은 인도인들만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아이로 인해 친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제 아들은 약간 애매한 나이다 보니 (박사과정의 집은 아이가 아

주 어리거나, KDI학생들의 아이들은 대부분 초등학생), 또래 친구들을 만나기도 어려워서 이점이 큰 애로사항이었습니다.

출국 전에는 뉴저지가 주거 렌트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서 기숙 아파트 외는 아예 고려하지 않았으나 에디슨에서 방두개 집을 렌트하는 경우 비용이 기숙아파트와 차이가 거의 없었으니 미국인을 이웃으로 두고 싶다면 기숙사 외 옵션을 생각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니콜스 아파트의 경우 화장실 내 배수구가 욕조와 세면대 밖에 없으므로 물이 바닥에 흐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모르고 한국에서처럼 화장실 청소를 한번 했다가 물이 배수가 안돼서 그 많은 물을 걸레로 다 닦아내야 하는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또한 기숙사 바닥에 물이 새면 아랫집 천장에서 물이 떨어질 수도 있는 구조라서 세탁은 별도의 세탁실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하루는 욕실 천장에서 많은 물이 쏟아져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윗집 욕조 이음새가 허술하여 물이 새서 우리 집으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니콜스의 경우 공용세탁실 건물이 두개 있고, 25센트를 사용해서 1.5\$를 넣거나 Speedqueen앱으로 충전해서 세탁비를 결제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수영강습 기간동안 수영복을 탈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니 세탁기를 100달러를 주고 아마존에서 구매했는데 욕조에서 사용해야 해서 불편했기 때문에 거의 사용을 안했습니다.

음식은 제 아들이 한식을 좋아하는 경향이 강해서 한국식 식습관을 계속 고수해야 했습니다. 채소나 과일, 생선, 돼지고기, 김치, 라면이나 만두 등 한국제품은 H마트를 이용하고, 소고기는 월마트와 코스트코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락다운 바로 직후에는 마트도 가능한 한 가지 않고 아마존을 통해서 Whole Food의 채소, 과일, 유제품 등을 많이 주문했습니다. 미국 마트 이용하다가 귀국 후 한국의 슈퍼마켓에서 주문하니 식자재는 체감상 미국이 70% 더 저렴하고 다양한 것 같습니다. 다만 쌀은 비싼 편이긴 한데 미국은 비소허용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커서 FDA가 일주일에 두세번만 쌀을 먹으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매일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집은 그나마 비소함량이 적은 캘리포니아산 백미를 구매하였습니다. 물론 H마트에 경기미니 이천쌀이 있지만, 모두 미국쌀이었고 원산지를 항상 확인했습니다.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제 이전 KDI 기수 분 중 어떤 분께서 본인은 1억2천을 여행경비로 쓰셨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었을 때는 비록 집에만 있더라도 지금이 (미국)여행 온 건데 어디를 그렇게 다니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많이 여행가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저와 단둘이만 여행 다니는 것을 그렇게 많이 반가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1학기 때는 방학 전까지 럿거스 가든 등 인근 공원들과 해변만 돌아다니고 방학 때 나이아가라, 보스턴, 엘로스톤 국립공원(비행기 이동), 필라델피아, 뉴저지의 아틀랜틱 시티와 케이프메이를 다녀왔습니다. 가을에는 뉴욕을 여러 번 다녀오고 워싱턴을 여행했습니

다.

서부나 올랜드, 단풍여행으로 화이트마운틴 등을 부지런히 다녀오신 주변 KDI학생분들에 비하면 참으로 소박하기 그지 없습니다. 지금에서야 제 이전 기수분의 얘기가 와 닿더군요. 정말 남는 건 여행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서부나 디즈니랜드, 단풍여행을 못 가서 아쉬운 것보다는 뉴욕의 화려한 쇼와 퍼레이드를 못 보고 가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코로나19때문에 메이시스 백화점의 불꽃놀이, 할로윈데이와 추수감사절의 퍼레이드(퍼레이드를 하긴 했으나 관람은 온라인만 가능), 브로드웨이의 뮤지컬, 메디슨 스퀘어 가든의 NBA경기, 라디오시티의 스펙타클러 공연이 모두 취소되었고 오로지 박물관과 미술관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여름부터는 뉴욕의 미술관은 운영을 했고 학생 할인을 받아서 이용했습니다.

사실 럿거스를 선택한 주요 이유중의 하나가 뉴욕이 바로 인근에 있어서 였습니다. 당초 50번의 방문을 계획했으나 결국 10번도 못 가봤습니다. 매번 가도 뉴욕은 새롭고 다양한 모습이 있고 음식도 맛있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갭이 한지역에서 보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바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서울이 연상되었습니다. 락다운 직후, 뉴욕에서 동양인이 많았다더라 라는 루머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고, 실제로 학교에서도 동양인을 피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나(학교 전산실에 앉아있으면 옆자리 사람이 힐끔힐끔 보거나 자리를 뜨는 분위기) 여름부터는 뉴욕에서 동양인이라고 차별하거나 하는 분위기는 없어졌습니다.

제 영어실력 향상을 위해서 인근 공공 도서관들의 영어 대화 프로그램을 참여 했었는데, 사람들도 알게 되고 재미도 있었으나 락다운 후에는 도서관 프로그램들의 대면 프로그램들이 모두 폐쇄되어 안타깝게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좋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제약이 따랐지만 평범한 직장인에게 1년 동안 시간과 학자금 지원이 주어지고 미국대학교의 석사학위를 딸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이것 만으로도 절대로 불만족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경험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값진 것이었지만, 절대로 쉽게 지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1년동안 제가 가장 많이 한 생각은 '내가 해낼 수 있는 건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벅찬 일을 내가 무모하게 벌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기관에서는 학위를 요구하지도 않는데 왜 학위과정을 선택해서 사서 고생을 하는건지 저의 과거 선택을 원망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두려웠고 사소한 모든 점들이 심지어 보험회사에 전화를 거는 것조차 저에게는 도전과 모험이었습니다. 럿거스의 석사학위가 남들에게는 쉬운 일이었겠으나 저는 1년안에 미국학위를 취득하는 것 자체가 녹록치 않았고 온라인수업으로 학업도 뒤쳐지고 영어도 뒤쳐지고 친구도 없어서 심심해 하는 우리 아이에게 선생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그 긴 과정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 비자

비자 발급은 저는 F1, 아들은 F2였으며, I-20발급 당시 아들의 이름 스펠링이 틀려서 렛거스에 다시 재발급을 요청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처리돼서 며칠 내로 다시 받았고, 이후 미국대사관에 예약하고 면접하면 되는 사항이라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작년 여름,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넷으로 100% 수업을 진행하는 대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해서 한참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으나 곧이어 해당 정책 발언은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 외 미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비자에 대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인근 국가들 특히 캐나다의 국경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저는 나갔다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걱정되어서 체류기간 동안 외국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 아이의 학교생활

아이가 있는 가족들은 렛거스 오리엔테이션 기간 동안 피스카타웨이(Piscataway: 기숙사가 있는 시 이름) 교육담당 기관에 가서 일괄 학교 배정을 받았고, 우리 아이는 코네티컷(Conackamack; 뉴브론즈윅 인근은 인디언 뿌리가 있는 곳으로, 시, 학교 이름 등에 피스카타웨이나 코네티컷 등 인디언 식 이름이 많음) 중학교로 배정받았습니다. 아이가 학교를 다닐 때는 학교 카페테리아 (MyMealTime 앱 사용해서 충전)에서 미국인 친구들과 점심을 먹었는데, 영양 측면이나 질적 측면이나 맛 측면에서는 매우 실망스러운 메뉴였으나 저도 학교를 가야 했기 때문에 점심을 싸주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KDI학생들의 아이들은(같은 학교에 3명 배정되었음) 김밥, 유부초밥 등으로 점심을 싸온다고 아이로부터 들었습니다.

스쿨버스는 매일 아침 7시 15분쯤 집 앞에 와있어서 그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갔고(학교 수업은 실제로 8시 20분쯤 시작하나 동네 곳곳을 돌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스쿨버스가 운영됨) 올 때는 2시30분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출국 전에는 제 아들이 덩치도 왜소하고 키도 또래보다 많이 작고 영어도 못해서 불링을 당하면 어쩌나 매우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학교를 보내니 오히려 그곳의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보다 덩치가 더 큰 것은 아니었고 학원에 지쳐 있는 한국 아이들보다 더 순진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이의 말을 들어보면 미국 아이들이 한국 아이들에게 호의적이었고 인종차별이나 불링 같은 문화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아이패드가 지급되는 것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오기 전에 학용품들(School Supplies) 구비해서 보내라고 하는데 플라스틱 파일 등을 빼고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은 영어도 잘 못하고 사교적인 성격이 아니어서 적응을 할 수 있을까 걱정했으나 저의 기우일 뿐이었고 학교생활을 매우 재미있어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재미는 3월까지만 지속되었고 그 이후는 계속 온라인 수업이었는데 맨 처음에는 미국도 이런

온라인 수업이 처음인지라 숙제를 온라인에 매일 아침 올려놓고 실시간수업은 거의 하지 않았는데 그 숙제라는 것이 매우 어려워서 절대로 아이 혼자 할 수 없는 분량과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학기때는 아이 숙제 때문에 바빴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2학기때는 줌 수업을 대부분 하고 숙제도 줌 수업 범위 내에서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어려운 숙제 몇 개를 빼고는 아이 학교수업은 거의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 아이의 방과후 활동

락다운 전 일주일에 세 번은 럿거스 수영장(College Avenue에 있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일주일 2회는 캐네디 도서관에서 튜터에게 수업을 받았습니다. 마빈 기숙사 근처에 있는 소니 워블린 수영장은 시설이 좋다고 들었으나 그곳에는 아이들 프로그램이 없었고, 칼리지 애비뉴 수영장 시설은 열악해서 샤워는 집에 와서 해야 했습니다. 튜터는 KDI학생 중 한 명에게 소개받았으며 1회 수업에 50\$를 드렸는데 매우 꼼꼼하고 책임감 있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름방학 이후부터는 귀국 후 적응이 걱정되어서 중1수학 과목에 대한 인강을 듣도록 했습니다. 중1수학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제가 직접 가르쳤으나 아이의 학업 태도와 풀이 방식 등 하나하나 신경 써야 되어서 저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고 아이도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인강 등록 후 아이와 제가 모두 행복해졌습니다.

- 운전

네비게이터는 구글 Map을 사용했습니다. 다른 프로그램도 써봤지만 저는 구글이 더 편했고 본인이 편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구글이 길을 못 찾는 경우가 있어서(가끔 경로 재설정을 몇 번씩 할 때가 있음), 먼 길을 갈 때는 아이의 핸드폰에도 구글을 켜서 갔습니다.

- 주차비

맨 처음 도착해서 황당했던 것은 기숙사의 주차비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땅덩어리도 넓은 나라에서 주차비를 내라는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1학기당 200달러를 냈었는데, 매일 하루에 2번 이상 체크하기 때문에 주차비 안내고 학교 주차장에 차를 함부로 주차했다가 주차비 폭탄을 맞을수도 있었기 때문에 거의 의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2월에(1월분은 이전 기수가 대신 내주기 때문에 제가 럿거스 주차 부서에 가서 취소요청을 해야 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주차비 결제할 때 차 번호판을 적지 않고, 차 등록번호를 적는 바람에 200달러의 벌금이 나왔었는데, 상황을 잘 설명한 메일을 발송했더니 감면되었습니다. 땅이 넓은데 왜 주차비를 내야 하는지로 생각하면 끝없이 이해가 안되는 일이고, 주차를 럿거스 대학의 비즈니스로 봤더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뉴욕 방문 시 차를 가져간다면 하루치 숙박비의 50%에 해당되는 비용을 주차비로 내야하는 것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뉴욕 호텔 이용할 때는 보통 인근 주차건물/주차장을 사용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고, 연결된 별도의 주차장이 없는 호텔은 구글 맵에서 '호

텔명 near parking garage'로 확인해서 주차를 했습니다.

- 코로나 검사

기숙 학생들은 모두 코로나 검사를 받는 것이 의무였는데(안 받는 경우 별도의 건물로 강제 이동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아서 모두 검사를 받음) 우리나라의 검사와 같이 PCR검사였으나 침만 일정량 뱉어서 제출하면 되는 사항이라 매주 화요일 학생 센터에 내야 된다는 불편함 외에는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다. 8월말부터 시작했으며, 가족들은 받지 않고 학생만 받았으며 별도 비용은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럽거스가 보험사에 직접 컨택해서 비용을 청구한다고 했고 이러한 절차가 어려운 경우 학교측이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저는 KDI에서 행정(MPM)을 전공했는데, 럽거스에서 행정 선택했던 것이 조금 후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럽거스는 도시계획 분야의 커리큘럼이 매우 우수하고 교과과목도 다양하므로 행정학을 받으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도시계획 분야를 전공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학우가(또는 남학우 혼자, 사실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지만 상황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만 데리고 외국에 오는 것이라면, 출국 전 생각했던 힘듦의 두세배를 겪으실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 먹을거리도 생각해야 되고, 아이의 학교생활도 봐줘야 되고, 더불어 나의 학업도 중요하고, 게다가 어렵게 외국에 왔으니 주말과 방학에는 여행을 해야 되니 여행 계획도 세우고 준비도 해야 됩니다. 저는 외국에서 어학연수를 한 경험도 없고 이렇게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아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맨처음에는 운전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두 번이나 역주행을 해서 두려움이 컸는데도(우리 나라는 보통 도로 진입 시 물리적으로 막아놔기 때문에 다른 차선으로 가기 어려운 구조이지만, 미국 동부는 'Do Not Enter'라는 표지판이 끝이기 때문에 못보고 들어가면 바로 역주행)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해야 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나 홀로 겪어야 하고 아이 때문이라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두려움이자 어려움이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쉽게 갈 수 있는 길들이 있었습니다. 각오를 단단히 하고, 영어 대화연습도 부지런히 하고, 돈이 더 들더라도 대면이 가능한 사립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아이를 학교에 보낸 후 나 혼자 가고 싶은 뉴욕을 맘껏 다니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다면 더 즐거운 생활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난 일에 대한 후회는 저에게는 의미가 없겠지만 후배님들께는 좀 더 즐거운 생활을 위한 팁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적어보았습니다.

테이크오버 당시 남들보다 더 비싼 값으로 차를 넘겨받았고 차를 팔 때도 급하게 카맥스에서 팔아서 그 당시에는 내 자신이 국제적 호구처럼 느껴지고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라고 자괴감에 빠졌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KDI학생들처럼 많은 곳을

여행하지 못해서 이 귀한 시간을 덜 즐기는 것처럼 느껴져서 어디든 가야 될 것 같은 의무감에 많은 시간을 인터넷 서핑으로 허우적대고 있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그 순간으로 가도 저의 선택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2019년 가을이 돌아온다고 해도 차에 1도 모르는 제가 저렴한 차를 살 것 같지 않고, 작년 12월로 돌아간다고 해도 당장의 졸업을 위한 보고서와 시험이 더 중요한데 중고 사이트에 올려서 공을 들여 차를 팔 것 같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뉴욕을 많이 보고 싶고 배우고 싶어했던 제가 렛거스 외 다른 선택지를 선택할 것 같지 않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항상 건강하고 무사한 것을 일 순위로 여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건강한 일상의 유지에 지난 일년을 행복해할 수 있었습니다. 바라건대, 후배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며 두서 없는 긴 글을 마칩니다.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김형문	학번	
이메일	dandyace79@gmail.com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Rutgers University / MCRS (도시계획) (국가) 미국		
기간	2020. 1. 1. ~ 12. 31.	[귀국일: 2020년12월30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학처장 귀하

2021년 1월 일

신청인 : 김형문 _____ (인)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 기후

Rutgers 대학은 미국 동북부 뉴저지 주의 New Brunswick에 위치하고 있으며 KDI 파견 학생이 거주하는 기숙사는 Piscataway에 위치. 날씨는 한국과 비슷하지만 최근 이상고온으로 한국보다는 덜 추운 편이며 눈이 자주 오는 편은 아니나, 가끔 30cm 가까운 폭설이 내리기도 함. 7~8월 여름에는 한국과 같이 폭염기간이 이어지며 서부 지역과 달리 연중 강수량이 꾸준한 편임.

- 수업시설

KDI 파견 학생은 Edward J. Bloustein에서 수업을 듣게 되며 기숙사에서 스쿨버스로 20~30분 거리임. 2020년엔 COVID-19 팬데믹 여파로 1~3월에는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하였으나, 그 이후는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

- 생활환경

뉴저지는 미국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 중 하나로 마트, 체육시설, 공원 등 편의시설이 많아 생활이 편리함. 특히, Garden State라고 불리울 정도로 공원이 많아서 인근에 Johnson Park, Cheesequake Park, Hacklebarney State Park, Colonial Park 등 방문할 만한 공원이 많으며, Sandy Hook, Asbury Park Beach, Beamar Beach, Cape May, Atlantic City 등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해변이 다수 위치함.

- 지리적 위치 (근교 여행)

뉴욕 시티 (맨해튼), 필라델피아, 보스턴, 워싱턴 등 대도시가 멀지 않은 위치에 위치하여 당일 또는 2~3일 코스로 여행하기 좋으며, 특히 맨해튼은 차로 40분 정도 거리이며 볼거리, 먹을거리, 유명 박물관들과 센트럴 파크가 위치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
맨해튼은 차로 40분 거리이지만 통비가 상당히 비싼 편이고 주차가 어렵고 주차비도 비싸기 때문에 코치버스 (편도 12달러, 학교에서 티켓 구매 시 9달러), 무료 페리 (스테이트 아일랜드에 12달러 주차 후 페리 탑승), 또는 기차 (편도 12달러)로 뉴브런즈윅에서 펜스테이션으로 이동하여 뉴욕 지하철 (1회 3달러)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함.

- 초기 정착

초기 미국 입국 시 뉴욕 영사관 방문, 핸드폰 개통, 통장 개설, 운전면허취득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학교에서 약 2주간 지원해 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며 혼자 해도 큰 어려움이 없음.

- 운전면허

운전면허 같은 경우는 차량, 면허를 관리하는 사업소 (DMV)가 워낙에 불친절하기로 유명하여 필요 서류 (6points)를 철저히 준비하여 한번에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좋음. 운전면허는 한국에서 면허를 갖고 있으면 실기는 면제되고 필기시험만 합격하면 됨. 필기시험은 영문, 한글 모두 응시가 가능하며 문제가 까다로운 편이라 불합격하는 사람도 많지만, google에서 검색하면 실제 시험과 똑같이 나오는 문제은행 사이트가 있어서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음.

- 아파트, 차량, 물품

아파트, 차량, 물품 등은 KDI 기존 재학생들에게 테이크오버 받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경제적이지만 테이크오버가 어려울 경우, Heykorean (<https://www.heykorean.com/>), Craigslist (cnj.craigslist.org), 미준모 카페, Offer-up (offerup.com) 등 중고물품 사이트를 통하여 자동차, 물품을 직구매하는 것이 비교적 저렴. 특히, Heykorean 중고차 직거래는 달러 구매보다 저렴.

- 주차

거주사 거주자의 경우에도 Parking Permit을 구매해야 하며, 보통 학기 단위로 판매. Parking Permit을 구매해도 지정된 주차구역만 주차가 가능하므로 교통 관련 학교 홈페이지를 확인하여 주차 가능 구역 확인 필요. 주차 위반 시 20~50달러 정도의 위반 과태료가 통지되지만 정착 초기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명하면 잘 면제해 주는 편임.

- 이지패스

한국의 하이패스처럼 미국 동부지역은 이지패스를 사용하는데 NJ EZPass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후 단말기를 수령하여 사용하면 요금 할인 적용 등 편리하게 사용 가능. 선불 결제 시스템 (평균 사용량에 따라 차등 선결제)으로 귀국 전에 미리 사용 해지 및 환급 신청하고 단말기를 반납 해야 금전적 손해가 없으며 미국 중부 또는 서부 지역은 적용이 안 되는 곳이 많음.

- 신용카드

학교에서 연결해 주는 은행계좌 개설 시 Debit 카드를 발급하여 한국의 체크카드처럼 쓸 수 있으나, 한국에서 환전하고 송금 시 환 차액과 송금 수수료가 적지 않아 미국 입국 전 한국에서 외환카드 (체인지업 카드 등)를 발급받아 달러를 예치해 두면 환전 및 송금 수수료 없이 한국처럼 카드 사용이 가능

- 자동차 보험 가입

자동차 보험은 주로 Progressive와 GEICO를 많이 가입하는데 미국은 6개월 단위 보험 가입으로 첫 6개월은 Progressive가 저렴하고 이후는 GEICO가 저렴한 편임. 특히, GEICO는 월별 납부 시스템으로 귀국 전에 해지가 간편하고 해지 시 일할 계산되어 납부한 보험료가 환급됨.

- 프랜차이즈 멤버십 가입

미국에서는 주로 아마존에서 온라인으로 물품을 구매하며 아마존 프라임 회원 가입 시 배송이 상당히 빠르며 (2~3일), 프라임 제품에 대한 할인률이 높고 무료 반품이 많아 프라임 회원 가입을 추천. 특히, 아마존 프라임 회원 대상으로 유기농 마켓인 홀푸드에서 프라임 제품 할인이 적용되며, 이 경우 고기, 야채 등 고급 식재료를 반값 정도 가격에 구매가 가능. 멤버십 회원비는 월 6.99달러 상당이나 학생에 한하여 6개월 면제되며 6개월 경과 후 러거스 제2메일, 배우자 이메일 등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음.

코스트코의 경우는 회원제로만 운영되나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고 구매량에 따라 적립금이 쌓이므로 입국 초기 멤버십 가입이 유리하며 한국 멤버십도 사용 가능.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Rutgers 교과과정은 KDI에 비하여 크게 무리되지 않는 수준이며 교수님들께서 학점에 상당히 관대한 편이라서 부담이 없는 편임.

도시계획 전공의 경우, 현장학습과 외부 전문 강사 초빙 등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나, 4월 이후 COVID-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 학업성취도가 오프라인 수업에 비하여 많이 떨어진 편임.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Rutgers 학위 수료를 위하여 총 10개 수업, 30학점이 필요하나 KDI에서 2개 수업, 8학점이 인정되어 8개 수업, 24학점을 이수하면 학위 수료 가능하며, 학기별 ESL, ELL 등 영어

관련 수업 1개 과목 수강이 요구되나 영어 수업은 졸업을 위한 필수과목은 아님.
수강은 보통 봄 학기 4과목, 가을 학기 4과목을 신청하여 5월~8월까지 4개월의 여름방학 동안 여행 등 개인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으나 여름학기에 1과목 정도 수강하여 부담을 줄이는 경우도 있음.

도시계획의 경우, KDI Policy Seminar, Historic and Theory of Urban Planning, Urban Economy & Spatial Patterns, Planning Methods, Basic Quantitative Methods or advances methods course, Survey of Planning Law Principles가 필수 과목이나 Basic Quantitative Methods or advances methods course, Survey of Planning Law Principles는 KDI에서 수료한 Quantitative Methods, Introduction to Research Methods 등의 과목으로 면제가 가능함.

* 수강 신청 예시

과목명	교수명	주요내용
KDI Policy Seminar (필수)	Cander, Alan	정책 이론 및 미국 행정에 대한 강의 - 2개의 Memo Paper (2회) - Quiz (1회) - 국내 현안에 대한 정책 발표 (Paper, and PT)
History and theory of planning (필수)	Newman, Kathe or Lake, Robert W.	미국의 도시개발 역사와 이론 - PT 및 research paper (10 pages) - 6개의 reflection paper(3 pages) - 학생 주도 수업, 적극적인 토론 참여 요구
Planning Methods (필수)	Smart, Michael or Shih, Mi	도시계획에 필요한 정량, 정성 모델 강의 - Problems Set (4회) (도시계획 개선 모델, 인구 예측 등) - 시험, 발표 없음
Urban economics and Spatial pattern (필수)	Amirahmadi, Hooshang	도시 경제 및 공간 패턴 - 중간, 기말시험 (각 1회) - 발표 (PT, 15분)
Regional development	Amirahmadi, Hooshang	지역개발 이론 - 중간, 기말시험 (각 1회) - 발표 (PT, 15분)
Inter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Listokin, David	국제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역사지구에 대한 연구 - 한국의 역사 보존 연구 (그룹 프로젝트) - 역사 보존 사례 연구 (개인 프로젝트) - COVID-19 대응 사례 (특별 프로젝트) * PT 작성하나 발표는 없음
Urban Redevelopment	Listokin, David	도심 재개발에 관한 재정 및 사례 연구 - 중간, 기말시험 (각 1회) - 도시개발 사례 연구 (Paper or PT, 발표 X)
Environmental Planning Management	Greenberg, Michael	도시 개발 과정에 고려해야 할 환경 요인 연구 - Paper (2회): 환경 이슈에 대한 정책 방향 연구, 1개 과제에 대하여 2회 Paper 작성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 기숙사

KDI 학생들은 Busch Campus 내 가족 기숙사 Marvin 아파트, Nichols 아파트, 또는 싱글기숙사인 Buell 아파트에 거주, 세 곳 모두 건축된 지 오래된 아파트로 시설이 열악함.

다만, Nichols 아파트는 최근에 리모델링을 거쳐 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며, 아파트 내부 출입 시 카드키로 인증해야만 출입이 가능하고 출입구 내외부에 CCTV가 설치되어 보안상 상당히 안전하여 여성, 아이들이 있는 가족 거주에 적합. 또한, 단층 아파트로 복층 아파트에 비하여 공간 효율이 뛰어나고 환기, 채광이 좋아서 거주 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음. 개인적으로 처음에 체육시설이 가까운 Marvin 아파트를 신청했다가 리모델링, 공간 효율성 등 얘기를 듣고 Nichols 아파트로 변경하여 상당히 만족하였으며, 몇몇 KDI 가족이 Nichols로 변경한 사례가 있음. 수업이 계속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면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고 학교 외부에 거주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한달살기로 여러 지역 돌아다니는 방법도 있음. (2020 가을학기 온라인 수업 결정 후 여러 주 한달살기 목적으로 기숙사 계약 해지 요청했으나 학교 측에서 계약 해지 거부)

Marvin 아파트의 경우 종합 체육시설인 Sonny Werblin Recreation Center가 가까이에 위치하여 운동하기에 편리하며, Nichols 아파트는 Marvin 아파트와 체육센터에서 도보로 20분 정도 거리임. 싱글기숙사인 Buell 아파트는 2021년부터 KDI 학생은 사용하지 않고 비교적 신축건물인 Livingston 캠퍼스 싱글기숙사로 변경 예정

- 체육시설

Marvin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Sonny Werblin Recreation Center는 국제 규격의 수영장, 농구장, 헬스장, 휘트니스 시설 등이 위치하여 학생의 경우 연중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배우자 등 가족의 경우 학기, 월, 일 단위로 입장권을 구매하여 이용 가능.

다만, COVID-19 팬데믹 상황에 따라 가을학기부터 예약제로 운영되어 입장인원 제한.

Rutgers 골프장은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학생의 경우 비수기 10달러, 성수기 15달러에 라운딩 가능. 핸드카트와 전동카트 모두 사용 가능하며 핸드카트는 보통 월마트 등에서 50달러 정도에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골프장에서 5달러에 대여 가능하며, 전동카트는 18달러에 대여. Rutgers 골프장의 경우, 평탄한 코스로 핸드카트나 스탠딩 백워킹 라운딩도 체력적으로 크게 무리가 없음.

Rutgers 골프장 외 뉴저지 인근에 Quail Brook, Tamarack, Neshanic Valley, Mercer Oaks, High Bridge, Morgan Hill 등의 골프 코스가 있으며 오후 시간대에는 20~40달러 대의 저렴한 금액에 라운딩 가능

Johnson Park, Kroeger Park 등 인근에 수많은 공원이 위치하여 테니스장, 농구장, 산책로 등이 조성되어 운동하기 좋은 환경

- 마트

미국엔 다양한 마트가 존재하는데 식료품의 경우, 홀푸드, 트레이더조를 이용할 경우 양질의 고기, 야채 등을 구매할 수 있으며, 코스트코는 대용량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 가능. 롯데플라자, H마트에서는 한국 식품과 제품을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멤버십 가입 시 럽거스 학생증 제시하면 할인 및 적립금 제공. East Brunswick Shop Rite에서는 해산물 및 다양한 즉석식품을 판매. 특히, 랍스터를 저렴한 가격에 특가 판매하는 경우가 많음.

에디슨에 위치한 수라 Catering (포장 판매)에서는 반찬, 전골, 전, 떡 등 한국 음식을 저렴하게 판매, 한국 맛집 수준으로 퀄리티 높음. 특히, 금, 토, 일 오후 2시 이전에는 해물 찜, 탕 등 특식을 판매하는데 사전 예약하지 않으면 구매가 어려울 정도로 인기가 높음.

- 쇼핑

뉴저지는 의류, 신발, 일부 액세서리 등이 전액 면세로 쇼핑몰이 많고 가격이 저렴.

뉴저지 전역에 위치한 TJ maxx에는 다양한 브랜드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며, 특가 세일 기간에는 80~90% 세일 제품도 많음.

Mills at Jersey Garden은 중저가 쇼핑몰로 다양한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며, 뉴욕에 위치한 Woodbury 아울렛은 프리미엄 아울렛으로 고급브랜드를 저렴하게 판매하나 뉴욕 소재로 세금이 부과됨.

뉴저지에 위치한 Jersey Shore Premium 아울렛 또한 고급브랜드를 저렴하게 판매하며 뉴저지에 소재하여 대부분이 면세. Woodbury, Jersey Shore의 일부 상위브랜드는 한국인 매니저가 있어서 원하는 제품을 미국 전역에 조회하여 사이즈 선택 및 최저가 구매 가능.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 로드트립

Rutgers 대학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여름방학이 5~8월, 약 4달간으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기간을 활용하여 많은 KDI 가족이 미국 전역 로드트립을 경험. 개인적 의견으로 7~8월이 되면 로드트립의 핵심지역인 미국 남서부 지역의 온도가 40~45도에 육박하기 때문에 5~6월 경 남서쪽 방향으로 여행을 시작하여 혹서기 전에 그랜드 서클 지역 여행을 마치고 7~8월 경 북부로 이동하는 것을 추천

예시) 워싱턴 - 세네토어 국립공원 - 그레이트스모키 국립공원 - 세인트루이스 - 오클라호마시티 - 텍사스 (캐딜락랜치) - 신타페 - 앨버커키 - 피닉스 - 세도나 - 그랜드서클 (그랜드캐년, 자이언캐년, 브라이스캐년, 아치스, 캐년랜즈, 홀스슈, 모뉴먼트 벨리, 데스벨리) - 라스베가스 - 캘리포니아 및 1번 국도 (LA, 샌디에고,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 샌프란시스코) - 세콰이어, 킹스캐년 국립공원 - 요세미티 국립공원 - 타호레이크 - 크레이터레이크 - 올림픽국립공원 - 글레이셔 국립공원 - 엘로스톤 국립공원 - 로키산맥 국립공원 - 덴버 - 러쉬모어, 데블스 타워 - 시카고 - 피츠버그 코스

특히, 글레이셔 국립공원, 엘로스톤 국립공원, 로키산맥 국립공원은 초여름에도 눈이 쌓이고 폐쇄된 곳이 많기 때문에 로드트립 마지막 경로로 7월말 ~ 8월경 방문해야 로건패스, 히든레이크 트레일 등 절경 감상 가능.

가을 단풍철에는 미 동부 5개 주의 집합체인 뉴잉글랜드 단풍 여행 추천.

개인적으로 레이크 플래시드 (뉴욕) - 스톤 (버몬트) - 화이트마운틴 (뉴햄프셔) - 아카데미 국립공원 (메인) - 포틀랜드 - 보스턴 - 모호크 트레일 - 윌리엄스 타운 (탱글우드) 코스로 로드트립을 경험하였는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모호크 트레일은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단풍로드로 약 5시간 코스임.

로드트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차량과 숙소인데 출발 전 안전을 위한 차량점검 (스퍼어타이어를 포함한 타이어, 엔진오일, 냉각수, 브레이크 등)이 필수, 성수기에 국립공원 내 랫지, 캠핑장 등은 사람이 상당히 몰리기 때문에 사전 예약 필수, 요세미티, 자이언, 로키산맥 등 주요 국립공원은 입장 및 국립공원 내 셔틀버스 사전 예약 필요 (recreation.gov)

- 종교활동

KDI 학생의 경우, 기숙사 인근에 위치한 한인교회인 찬양교회에 많이 다니는 편이며, 찬양교회에는 사랑방이라는 10명 내외 친목 도모 커뮤니티를 운영
보통 미국 입국 초기에 KDI 가족과 사랑방 가족이 모여 식사하는 자리 마련
사랑방 모임은 1주일에 한번 Host의 집에 모여 저녁 식사와 함께 친목을 도모하며, 매주 토요일은 뉴저지, 뉴욕, 펜실베이니아 인근 관광명소를 방문하여 트래킹, 피크닉, 야유회 등 실시, 월 1회 또는 분기 1회 사랑방 골프모임 등 친목활동. 특히, 설날, 추석 같은 한국 명절에는 한국음식, 추수감사절, 성탄절, 할로윈 같은 서구 기념일에는 칠면조, 스테이크, 랍스터, 바베큐 등과 함께 미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됨.
KDI 가족 뿐만 아니라, 법무부 헌법연구관, 럿거스 의대 교환교수, 영구 이민자 등 다양한 가족들이 모여 종교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인간관계를 맺고 활동할 수 있는 커뮤니티 개인적으로 매주 1회 정도 사랑방 모임에 참여하고 일부 로드트립도 함께할 정도로 사랑방 가족과 친분을 쌓았으며 미국에 머무른 1년 동안 로드트립과 사랑방 커뮤니티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음.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COVID-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활동이 많이 위축되기는 하였지만 로드트립, 사랑방 커뮤니티, 운동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며,
온라인 수업으로 인하여 현장학습, 전문가 특강 등 제약은 있었지만 미국이라는 거대한 국가의 역사, 지리, 도시계획 등을 배울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 됨.
특히, 부쉬캠퍼스 커뮤니티에 가입 시 무료 영어 강의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며, Rutgers Club 가입 시 트래킹, 카약킹, 캠핑 등을 학부 재학생들과 함께 즐길 수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원어민들과 가든파티 등 다양한 교류 경험 가능
(2020년엔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하여 5월 이후 Rutgers Club 활동은 중단)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비자 발급의 경우, 각 기관별 체제금 지원에 대한 명확한 서류만 있으면 비자 발급엔 큰 문제가 없었으며,
기숙사 거주자의 경우, 학교에서 여러 종류의 예방접종 확인서를 요구하는데, 2020년의 경우 학생 본인에 한하여 뇌수막염 예방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30세 이상자에 대하여 다른 예방 접종 확인 제출 요구는 하지 않음. (자녀는 확인 필요)
미국 입국, 귀국 시에는 1년간 체류로 인한 수하물 추가 요청을 하게 되면 추가금 없이 1인당 위탁수하물 23kg *2 + 23kg *1까지 가능 (아시아나는 골프백 포함 추가 32kg*1). 또한, 귀국 시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삼촌택배 이용 시 40Lb까지 80달러에 한국까지 항공배송 가능하며 1LB 초과 시 2달러씩 추가 지급 (30Kg 초과 시 국내배송 추가금)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2020년의 경우 COVID-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5월에 셋다운이 걸리는 등 애로사항이 많았으나, 2달간의 미국 전역 로드트립과 사랑방 커뮤니티 활동, 원어민과의 다양한 교류활동에서

많은 사람을 접촉하였지만 마스크 착용 및 손세정을 철저히 하며 개인위생에 신경을 쓰면서 활동하여 건강문제 등 심각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음.

미국이 한국과 다르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우려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위생 철저히 하면서 학교생활과 미국생활을 하게 되면 소중한 경험이 될 거라 생각함.

또한,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강의, 워크숍, 체육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1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배우자 영어 강습의 경우, 실력 있는 원어민 교수의 소수인원 수업으로 영어 소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며, 타 대학의 경우 5,000~10,000 달러의 수강료를 받는 경우도 있으나, Rutgers는 무료 강의에 학기별로 수료증까지 발급하여 동반 가족의 비학위 과정 수료에 도움이 됨.



GMP 귀국 보고서

인적사항

성명	정동희	학번	
이메일	2000east@naver.com		

대학원명	(대학원 / 전공) Rutgers / Urban Planning	(국가) U.S.
기 간	2020. 1 ~ 2020. 12	[귀국일:2020년12월 31일]
첨부서류	GMP 2년차 보고서 (3페이지 이상; 10pt. 1줄 간격)	

본인은 GMP 2년차 과정 수료 후, 귀국 보고서를 제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표지 이외에 3페이지 이상의 보고서를 제출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 GMP 2년차 대학에서의 초기 생활적응
(기후, 지리적 위치, 생활관련 사항, 자녀학교 등)
2. GMP 2년차 대학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에 대한 인상
3. 수강신청 및 이수에 대한 경험, 평가, 후배를 위한 제안
(학기 당 수강과목 수, 각 수업의 구성, 논문작성 강도 등)
4. 기숙사 또는 아파트 및 음식에 대한 평가, 제안 등
5. 기타 활동에 대한 경험담
6. GMP 2년차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7. 비자, 출·입국, 기타 해외생활에 대한 정보
8.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교학처장 귀하

2021년 1 월 14 일

신 청 인 : 정 동 희 (인)

저는 2019년 KDI에서 1년 학업을 마치고 2020년 미국 뉴저지에 있는 Rutgers Univ에서 1년간 Urban Planning을 공부하고 왔습니다. 우선 제가 미국으로 갈때는 코로나가 없던 시절이라 큰 걱정없이 미국으로 향할 수 있었네요. Rutgers는 뉴저지에 3개의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New Brunswick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살던 도시는 집에서 자동차로 약 40~50분만 가면 뉴욕 맨하튼 중심가까지 갈수 있는 좋은 지리적인 조건을 갖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특별한 계획이 없으면 거의 뉴욕에서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뉴저지와 뉴욕은의 기본적인 기후는 한국과 매우 흡사해요. 위도상으로 서울과 비슷하기 때문에 4계절을 가지고 있으며,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습니다. 뉴저지는 겨울에 눈이 많이 오는 해가 있다고 합니다. 2020년초에는 눈이 거의 안왔지만 2020년 12월말에 몇시간만에 30cm정도의 눈이 와서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된것도 참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미국은 미세먼지라는게 없기 때문에 항상 좋은 공기와 맑은 하늘, 수많은 별을 볼수가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면 치안을 많이들 걱정하는데 Rutgers는 기숙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하지 않고 다녔습니다. 기숙사가 다른 지역과 좀 떨어진, 기숙사만 모여있는 동네에 있기 때문에 밤에도 학교를 산책하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치안은 괜찮았습니다. 다만, New Brunswick이라는 도시는 밤에 뒷골목을 혼자 다니면 좀 위험하겠더라구요. 학교에서 치안관련 이슈가 생기면 이메일로 통보해주는데 가끔 총기사고도 나더라구요. 하지만, Rutgers 기숙사가 위치해 있는 곳은 외지안이 굳이 오지도 않고 어차피 학생들이 사는 기숙사기 때문에 올 이유도 없지 않을까 했네요. 기숙사는 Rutgers 캠퍼스내에 위치해 있어서 산책하기 아주 좋습니다. 특히, 도보로 약 15분정도 거리에 학교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있어서 골프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습니다. 저도 같이 간 학생들과 시간날때마다 운동을 하고 멋진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것이 지금생각하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 다시 그 시간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만 간절하네요. 아이들이 좋아했던 또 한가지는 동물원이 아닌 집 근처에서 많은 동물들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청솔모, 노루, 캐나다 구스(?) 등은 집 앞 주차장에서 거의 매일 만날 수 있고, 기회가 좋다면 야생토끼와 여우도 만날 수 있습니다. 초여름이 되면 반딧불도 만날 수 있는데 저는 반딧불이라는 것을 작년에 처음 보았네요. 지금생각해도 그 때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과 함께한 아이들도 그 때의 기억을 지금도 좋아합니다.

뉴저지는 한인들이 많이 살고 계셔서 음식 걱정은 안하셔도 되요. 한인마트, 한인 자동차 수리점, 미용실, 한국 제과점, 한국 주류(소주, 막걸리 등) 등등 뭐 굳이 한국에서 필요한 것들을 배송시켜 받을 필요 없이 모두 구입가능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1년거주하면 미국인들의 생활을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은 기회이겠죠.

미국에서 2020년 3월에 코로나바이러스가 심각해지면서 3월중순부터 학교가 온라인수업으로 변경되었어요. 물론, 중고생들과 초등학생들도 모두 온라인으로 바뀌었구요. 초반에는 온라인 수업이 정착되지 않아서 고생을 좀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후반기부터는 익숙해지더라구요. 아이들학교배정이나, Rutgers 수강신청 등은 Rutgers 직원들이 도와주니 크게 걱정안해도 됩니다. 다만, 작년은 코로나가 심해졌던 시기라 아이들 영어가 크게 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그게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시기가 하루라도 빨리 오면 좋겠네요.

혹시, Rutgers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전임자들과 보통 take-over로 모든 것을 주고받기 때문에 큰 걱정 안하셔도 될거 같아요. 1년 거주하는데 집, 자동차, 생활용품들을 구입하고 알아보는 것에 많이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take-over 시스템으로 해결하면, 시간, 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생활 노하우도 전임자에게 직접 들을수 있어서 전 Rutgers를 선택했네요. 그리고 2020년에는 KDI에서 약 20분 정도가 가서 서로 모르는 것도 물어보고, 수업도 같이 들으며 과제도 함께하고, 좋은 정보도 공유하고 그래서 유익했습니다. 소수로 미국 시골로 가시는 것보다는 많은 장점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Rutgers가 제공하는 기숙사 상태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기숙사가 건립된지 좀 오래되었고, 미국인들의 스타일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가 같은 리모델링을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기숙사에 수리가 필요한 것이 있어도 바로바로 처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구요 항상 시간과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하더라구요. 그렇다고 100% 만족할 수준으로 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내려놓는다~ 생각하고 살면 편하게 1년 지내다 올 수 있습니다.

제가 학교선택시 미국을 선택한 주요 이유중 '여행'이라는 놈이 커다란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영국으로 가서 유럽을 다녀도 되지만, 개인적으로 유럽은 몇 번 다녀왔기에 미국 본토가 더 땡기더라구요. 여행계획 또한 전임자들이 다녔던 기본 코스에 본인의 취향을 가감해서 계획하면 훨씬 효율적인 루트를 만들수가 있겠죠? 물론, 2020년에는 코로나라는 놈때문에 미국 인근국가인 캐나다, 남미 등은 다니지 못했지만, 미국내만 돌아보는 것도 쉽지 않더라구요. 여행을 다니게 되면 주로 국립공원을 다니게 되는데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에게 1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입장권 같은게 나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미국 모든 국립공원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은 가족은 모두 무료라는 것입니다. 아동중에 4학년 자녀가 있는 가정은 꼭 활용해보세요~ 절약한 비용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기본적으로 서부지역(캘리포니아, 아리조나, 와이오밍 등)은 다녀오는데, 뉴저지는 동부에 있기 때문에 보통 비행기를 이용해도 이동합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뉴저지에서 타고 다니던 자가용을 이용해서 다녀온 가족도 몇가족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행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외야하면, 동부에서 서부로 이동하는 경로에 우리가 잘 모르는 숨은 보석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 글을 적는 순간에도 미국을 생각하면 설래고 다시 가고싶고 하네요. 물론 미국은 지금도 하루에 20~30만명의 코로나가 환자가 발생하지만, 실상 미국 인들은 크게 개념치 않은거 같아요. 워낙 면적이 넓기 때문에 한국처럼 다닥다닥 문화가 아니거든요. 우리 가족도 집 근처 산책할 때는 마스크 쓰지 않고 다녔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일이 많지 않거든요. 아무쪼록 후배님(?)들도 이 글을 보시고, 미래를 선택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구요 가족들과 좋은 추억, 혹은 혼자 가시는 분들은 좋은 인연 만들고 오시길^^

